

북한과 인권

북한의 종교박해
〈탄압의 과정과 시기:1945-2011〉



● 원재천 교수

미국 버지니아 폴리테크닉 주립 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뉴욕 브루클린 로스쿨에서 Juris Doctor 학위를 받았고, 뉴저지주/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군법무관과 뉴욕주 검사,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국장을 역임했고, 현재 북한인권 시민연합의 국제이사이며, 한동대학교 국제법센터 소장 및 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개요

한때 동양의 예루살렘으로 불렸던 북한은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가장 억압적인 국가 중 하나다. 종교 활동의 외양은 정부가 후원하는 소수의 예배 장소에서 보일지 모르나, 광범위한 증언을 통해 북한 정권이 종교인들을 국가 안보 범죄자로 간주하고 그에 따라 기소하고 있음이 드러났다.¹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자녀를 포함한 그들의 가족들은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처벌되었으며, 고문당하고, 처형되거나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 **이에 더해 북한 종교인들은 체계적인 사회-정치적 차별을 겪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독립 운동부터 한국 전쟁, 또 현재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종교 탄압의 변화 과정을 시기별로 나누어 기술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종교 탄압의 전체적인 패턴을 보여주기 위해 네 개의 시기로 나누어져 있다: 첫 번째 시기- 한국 전쟁 이전(1946~1950), 두 번째 시기- 한국 전쟁(1950~1953), 세 번째 시기- 김일성주의 운동 이전(1953~1971), 네 번째 시기- 주체 사상의 시대(1972~ 현재).** 논문의 분석은 종교 박해에 대한 큰 그림을 보여주겠지만, 주안점은 탄압의 주요 목표가 된 개신교가 될 것이다. 기독교 박해와 불교 박해에 대한 비교 또한 다루고자 한다. 본 논문은 전통적인 연구 자료 이외에도 탈북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1. 첫 번째 시기: 회유와 탄압

독립부터 한국 전쟁까지 (1946~1950)

- 종교 집단의 중요성²과 종교에 대한 북한의 이중 정책

일본 으로부터의 해방 당시, 북한 인구의 약 24.7%는 천도교³, 불교, 개신교, 가톨릭⁴ 등 종교인들이었다. 개신교회는 배움의 장소였고⁵, 기독교 지도자들은 적극적으로 독립을 위한 국가적인 활동에 참여했다.⁶ 이러한 점에서 기독교의 영향은 단순한 통계 이상이었으며 정치와 사회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북한의 정책은 두 가지로 나뉘었다:** 첫째로, 개신교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제거해야 했다. 둘째로, 그러나 개신교의 중요한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은 활용해야만 했다.⁷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 정권은 회유와 완화된 탄압이라는 이중 정책을 시행했다.

1.1 진보적 개신교 집단에 대한 장려와 반당(反黨) 종교 집단에 대한 기만적 탄압

개신교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1945년 10월 공산당 회의**에서의 김일성 주석의 연설로 설명된다.⁸

우리는 프롤레타리아와 농민뿐만 아니라 국가 기업을 포함하는 모든 애국적 민주주의적인 자원을 수반하는 통일전선을 설립해야 한다. ...지식인, 종교인 및 자본가 계급 또한 잘 조직되어 있지는 않지만 행동에 나서고 있다. ...우리는 민족 통일전선을 형성할 때에 민족주의자들을 무분별하게 배제하거나 그들의 역량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⁹

또한, 다수의 종교 대표자들은 1946년 2월 “북조선임시위원회”가 구성되는 데 관여했다.¹⁰ 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1946년 11월 3일 인민위원회 선거에서 도,시,구의 관직에 선출되었다.¹¹

김일성은 다음의 발언을 통해 종교 지도자들의 참여를 지지하였다.

종교의 자유는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보장되며, 어떠한 종교도 박해받거나 억압받아서 안 된다. 모든 북한의 종교인들은 시민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인민위원회 선거에 참여할 완전한 권리와 자유를 가진다.¹²

동시에 공산당 정부는 종교인들을 “제국주의자, 봉건주의자, 민주 혁명에 적대적인 해로운 반동분자 종교인들”로 묘사했다. “반동분자 종교인들”에 대한 연설에서 김일성은 이들이 “토지를 소유하고 노동 없이 밥을 먹는 부르주아들”이라고 말하며 “...이들은 모두 노력 없이 돈과 음식을 낭비하는 기생충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먹일 필요가 없다.”라고 연설하였다.¹³

북한 체제는 비협조적인 종교인들을 전략적으로 탄압하는 한편 공산주의 종교인들이 사회 및 정치 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는 오래가지 않았다.

1.2 제한된 종교의 자유: “통일전선전략전술”에 대한 관찰

이 시기의 종교의 자유는 매우 제한적이었고 “통일전선전략전술”에 협력하는 이들에게만 주어졌다. 북한 체제는 엄격한 종교 통제를 통해 최대한 이익을 얻으면서 종교 집단들이 공산주의 건설에 방해가 되는 것을 막고자 하였다.

북한 정권은 1946년부터 1948년까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직접 간접적으로 탄압하기 위해 일련의 정책들을 시행했다. 이러한 정책들에는 교회와 신자들의 토지 몰수,¹⁴ 정당 가입 거부,¹⁵ 미신 근절 운동,¹⁶ 교회 지도자들의 체포 등이 포함되었다.¹⁷ 신학교들에 지시 형태로 내려진 행정적 박해,¹⁸ 법정공휴일로 일요일 대신 월요일 지정,¹⁹ 저녁 예배 금지를 목표로 한 오후 6시 이후 통행 금지령²⁰ 등도 실시되었다.

1.3 정부 설립 이후의 정책 변화: “제한된 종교의 자유”라는 틀 안에서

1948년 9월에 정부가 설립된 후, 북한 체제의 종교에 대한 정책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앞서 소련군정 하에서는 비밀리에 종교를 박해하면서 국제적 평판 유지를 위해 이름뿐인 종교적 자유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북한 정부가 수립되고 나자 1949년에 본격적으로 종교를 없애기 위한 공격이 시작되었다.²¹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4조는 반국가 활동에 관여한 종교인들을 범죄자로 분류하면서 종교를 임의로 탄압하는 수단이 되었다.²² 또한 교회학교들은 압수당했으며²³ 종교 지도자들은 불법적으로 체포되거나 납치되었다.²⁴ 이 종교 지도자들 중 많은 수가 처형당했다.²⁵

1.4 불교: 소멸

불교는 삼국 시대부터 한반도에서 가장 대중적인 종교였다. 16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불교는 한국의 문화, 정신 및 사상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일제 식민 통치가 끝난 후에는 특히 더 그러했다.

한국 전쟁 이전에 기독교는 불교와 비교해 훨씬 엄격한 제한 정책의 대상이었다. 불교 사찰들은 산 속에 위치해 있었고 모임은 대개 개인적이었다. 또한 불교는 화합과 운명이라는 오랜 동양적 사상에 기반한다. 반면, 기독교는 서구로부터 왔으며, 교회들은 도시에 위치해 있었다. 기독교 모임은 대부분 큰 규모였고 기독교인들은 사회와 정치 개혁에 적극적이었다. 더 나아가 불교 신자들과는 달리 기독교인들은 체계적으로 조직되어 있었다.²⁶

이러한 차이들로 인해 불교는 심한 박해의 대상이 아니었으며, 북한 정권에 의해 비교적 초기부터 활용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는 1945년 12월 26일에 설립되었으며 375,438명의 회원을 보유한 조선불교도연맹이 있다.²⁷

불교의 물질적 기반은 1946년 토지 개혁과 함께 붕괴되었다. 단체의 본질적 속성 때문에 불교는 토지 개혁으로 인한 큰 타격을 입었다. 석왕사의 경우 4000여평 (1평 = 3.3m²)의 토지를 몰수당했다. 또한 북한 정권은 승려의 수와 식량 배급을 제한했다.²⁸ 그 결과 많은 승려들이 절을 떠났고, 승려의 수는 200명에서 30명으로 줄었다. 100명이 넘는 승려가 있던 보현, 건봉, 유점 및 귀주 사찰의 상황 또한 비슷했다.²⁹ 1948년 북한 정부가 세워진 후 대부분의 불교 사찰은 관광 명소 또는 휴양지로 바뀌었다.

상대적으로 북한의 불교는 다른 종교들에 비해 덜 심각한 수준의 탄압을 겪었으며, 정치적, 사회적 목적을 위해 훨씬 일찍부터 북한 정권에 의해 이용되었다.

1.5 소결

독립 이후 한국 전쟁까지 북한은 기독교를 자신들의 사회적, 정치적 필요에 따라 동화시키고자 시도했다. 동시에 북한은 정권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미신을 근절시킨다는 미명하에 비밀스럽고도 교묘히 탄압했다.

1948년 9월에 공식적인 북한 정부가 세워진 이후 북한은 여러 형태의 탄압을 행해 왔다. 종교 탄압의 수준과 강도는 공산주의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더욱 심해졌다. 한편, 불교의 특성들 때문에 북한은 공산주의 건설에 있어 불교를 사소한 문제로 보았다. 기독교와 달리 불교는 이미 한국 전쟁 전에 북한 정부의 지배력 아래에 있었다.

2. 두 번째 시기:

공공연한 탄압과 전쟁으로 인한 손실

한국 전쟁 (1950-1953) - 교회 박해

2.1 종교인들에 대한 불법적 납치와 대규모 학살

북한 정부는 전쟁으로 인한 혼란을 틈타 종교인들, 특히 기독교 지도자들에 대해 선택적, 악의적인 탄압을 가했다. 많은 신앙인들이 대규모 학살의 피해자가 되었다. 또한 **한 마을의 신자들이 집단적으로 도살되고, 교역자들의 가족 전체가 모조리 죽임당한 경우도 많았다.**

2.2 북한 교회의 손실과 탄압

한국 전쟁 중 교회가 겪은 손실은 정부에 의한 불법 체포, 투옥 및 학살로 인해 굉장히 높았다. 이 기간 동안 사망, 실종 또는 체포된 북한 목사와 전도사의 수는 총 350명에 달했다.³⁰ 인민군은 퇴각하면서 점령된 지역의 교회 지도자들을 대거 학살했다. 이에 대한 예로 이승만 목사는 아버지의 죽음과 “50명이 넘는 목사님들이 (대동강 근처의) 구덩이에 매장되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³¹

이 시기에 북한의 교회들이 겪은 탄압은 탈북자의 다음 증언에 드러난다.³²

1939년 함경북도에서 태어난 인터뷰 대상자 A씨 ▶

“한국전쟁 전에 목사였던 큰오빠는 산에 피난처를 마련해 두고 전쟁 기간 동안 신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 큰오빠는 목사였다는 이유로 1954년에 체포되었다. 큰오빠는 16년간 교화소에 수감된 후에 풀려났는데, 이후 다시 끌려갔고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

많은 수의 목사들이 학살되고, 투옥 및 남한으로 대거 추방된 결과 북한에 남은 목사들은 20명도 되지 않았다.³³ 1951년 1월 4일 후퇴 때 남한으로 온 탈북자들 또한 전쟁 중 인적자원 손실에 포함되었다. 독립 시기부터 한국 전쟁이 끝날 때까지 남한으로 탈출해 온 개신교인 탈북자 수는 약 7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³⁴ 북한에 남아있다고 추정된 개신교인의 수는 5만 명 미만이었다.

종교 단체들은 한국 전쟁과 북한 정부의 전면적인 **‘종교 말살 정책’**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전쟁 이후, 북한에서 공개적인 종교 행위는 사실상 사라지게 되었다.

2.3. 소결

공식적인 정부가 세워진 후부터 북한 정권은 공공연하게 종교를 탄압하고 박해하기 시작했다. 특히 기독교는 미국과 강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요 탄압 대상이 되었다. 전쟁 이후, 기독교인들이 크게 박해를 받으면서 개신교는 생존하기 위해 고투했다.

3. 세 번째 시기: 체계적인 박해와 숙청

김일성 운동 이전 (1953-1971)

- 남은 종교인들에 대한 탄압

3.1 한국 전쟁 이후 - 1953:

지하교회 숙청 및 사상 개조 운동

한국 전쟁 이후에 북한 정권은 독자적인 사회주의 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체제의 정치적 안정화를 위해서 김일성 중심의 유일 지배체제가 수립되었다. 또한 정부의 자주적 통치에 중점을 둔 주체 사상도 확립되었다.³⁵ 이 전쟁 후 재건 기간 동안, 북한에 남아 있던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남한으로 탈출하거나 북한 방침에 동화되었다.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미국에 대한 적대심으로 인해 반(反) 프로테스탄트주의적인 분위기, 심지어 종교적 허무주의가 팽배했는데, 이는 전쟁 중 이른바 미군과 미국 선교사들이 저질렀다고 주장된 잔혹한 행위들로 인해서였다.³⁶

이 기간 동안에 북한 정부는 좀 더 체계적인 종교 박해를 계획하기 시작했고, 정권에 반대했던 남은 종교인들을 절멸시키기 위해 종교 말살 정책을 시행했다. **1950년대 후반**, 북한은 종교인들이 신앙을 포기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사상 교양 사업과 더불어 행동 교화를 실시했다. 또 이와 동시에 지하교회의 활동을 색출하고 탄압하여 박해하는 말살 정책을 시행하였다.³⁷ 조선노동당은 신앙을 고수하는 종교인들을 반동분자로 간주했고, 따라서 이들에 대해 처형과 박해라는 강경 정책을 내세웠다.³⁸

본 논문 속 인터뷰에는 1958년에 있었던 대규모의 종교 박해와 처형에 대한 증언들 또한 나와 있다. 2001년 탈북한 인터뷰 대상자 J씨는 1958년 7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평양역 앞에서 잡혀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인민보안부는 이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일요일에는 일하면 안 된다**”고 말했으며, 이 때문에 **반동적인 악질 종교인들**로 분류되었다고 말했다.

1959년 조선노동당과 조선민주청년동맹은 직접적인 반종교선전을 위해 수많은 서적들을 출판했다.³⁹ 이러한 출판은 사상 개조운동의 일환으로, 주민들을 교양하고 계몽하여 사회주의적인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신문, 서적, 드라마, 영화 등의 다양한 수단을 통해 종교의 반동성과 비과학성을 폭로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투쟁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였다.**⁴⁰

3.2 1960-1971: 주민등록사업과 성분⁴¹제도

1960년 북한은 종교 말살 정책을 유지하면서, 남아있는 종교적 유산을 모두 없애기 위해 보다 체계화된 **강경 정책**을 추진했다.⁴² 이 정책의 일환으로 북한은 **1964년 4월부터 1969년까지** 주민등록사업을 시행했다. 또한 1945년 당시의 집안 출신 배경과 당에 대한 개인의 충성도를 바탕으로 계급을 나누는 **주민성분 분류사업**도 실시했다. **1971년** 북한 주민들은 크게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의 3개 계층으로 구분되었으며, 이는 다시 세분화되어 51개 부류로 구분되었다.** 공식적인 성분제도의 목적은 노동자의 혁명화와 분류였지만, 실제 목적은 주민들의 정치적 성향 조사와 효율적인 **주민 통제를 위함**이었다.⁴³

종교인들 개신교인, 불교 신자, 가톨릭 신자, 유교도 - 은 적대계층으로 분류되었으며, 직업 배치, 교육 기회, 이사, 여행 허가 등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다. 이 보고서의 인터뷰 대상자들에 따르면, 주민등록사업과 성분제도는 차별적 대우를 초래했으며⁴⁴ 종교 억압과 연관되어 있었다. 다음은 구체적인 증언들이다.

인터뷰 대상자 B씨 ▶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김일성은 개인의 능력은 성분이나 출신 배경보다 중요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오직 당원의 자녀들만이 평양에 있는 대학을 가거나 김일성종합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처럼 일반 노동자라면 그 사람은 광산대학이나 삼림대학밖에 갈 수 없다. 그래서 ... 사회는 그를 하층에서 일하도록 만든다. 곧, 현실에서 성분은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시되며, 재능 있는 사람이라는 건 없다. 나는 1964년부터 1975년까지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일했다. 나는 인민보안부의 공민등록부에

서 일했으며, 비밀수사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 대한 [공식] 문서를 작성했다. 문서들은 지금도 존재하며 북한 인권 탄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인민보안부에 있을 때 ... 나는 그 문서들을 [직접 작성했다]. 나는 만아들이고 내가 태어났을 때 내 아버지는 광부였으며 어머니는 무슨 일을 하였고 등등. 나는 마을 하나를 맡았었고 그 마을 주민들을 비밀리에 조사했다. 그렇게 주민들이 과거에 무엇을 했고 부모님은 옛날에 뭘 하셨는지를 조사한 후에 "주민등록부"라는 문서를 작성했고, ... 그 문서를 [보관했다]. 북한 주민들은 주민등록상의 출신 배경에 따라 분류된다. 국군 포로의 가족들은 43번으로 분류되며, 추방당했다가 되돌아온 가족들은 49번으로, 전쟁 중이나 독립 전에 명백한 범죄행위를 한 사람들은 적대계층으로 구분되어 49번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은 전쟁이 났을 때 49번을 제일 먼저 죽어야 할 대상으로 여긴다. 종교인들은 아예 분류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 [그들은 가장 먼저 숙청되어야 할 대상이기 때문이었다].”

인터뷰 대상자 C씨 ▶

'월남자 가족'으로서의 나의 집안 출신 배경은 1965년에 시작된 주민등록상에 나타나 있다. 내가 월남자의 후손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나의 가족 전체는 산간벽지로 강제 이주되었다. 나의 [첫] ... 딸은 한 번도 보지 못한 할머니와 할아버지 때문에 왜 이토록 자신이 고통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많이 불평했다 ... 내 딸은 수학교육에서 2등을 할 정도로 매우 똑똑했다. 그러나, 딸은 선생님이 '남한으로 도주한 사람의 손녀가 감히 어떻게 대학을 갈 생각을 하느냐'라고 말했다며 내게 크게 불만을 토로했다.

3.3 소결

한국 전쟁 이후, 북한은 사상 교육을 강화했으며 동화되지 않은 남은 종교인들을 숙청하는 데에 주력했다. 북한 체제는 다양한 출판물을 통해 사회주의 사상과 반(反) 개신교 선전을 강화했다. **1960년대에는 주민등록사업과 성분제도가 시행되었다.** 종교인들은 가장 낮은 계층으로 분류되었고, 사회적 차별의 대상이 되었다.

4. 네 번째 시기: 종교 친화 정책의 출현

주체사상의 시대 (1972-현재)
-정부 부처의 기능을 수행한 종교

역사 전반에 걸쳐 북한은 지속적인 혁명, 전체주의, 반대 의견에 대한 적개심이라는 전통적인 공산주의 원칙들을 밀고 나갔다. 종교를 완전한 통제 아래 두기 위한 시도 후에, 북한은 종교를 남한과 서구 사회를 개입시키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1972년 남북회담과 1989년 세계청년학생축전을 개최하고, 또 1990년대 국가적 식량 부족 위기 때 다양한 국제 종교 단체들로부터 지원을 받은 후에, 북한은 종교 이용 정책을 추진했다.⁴⁵

4.1 반종교 선전

비록 북한의 반종교선전은 1970년대에도 지속되었으나, 종교에 대해 부정적이던 태도는 완화되었다. 1972년 북한은 헌법 개정을 통해 “반종교 선전의 자유” 조항을 “종교의 자유” 조항으로부터 분리시켰다. 헌법 개정 후부터 종교에 대한 행정적 제재는 줄어들었다. 대신 영화, 연극 및 기타 매체 등의 방법을 통한 설득이 이루어졌다.⁴⁶

이같은 정책 노선에 따라, 1990년 4월 22일에 열린 최고인민회의는 6명의 정부 후원 종교 협력자들을 총 정원 687명인 대의원들의 일부로 받아들였다. 1992년에 사회주의 헌법은 반(反) 종교적인 언어가 완화되게끔 개정되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많은 억압적인 관행이 일어났다. 북한이 공산주의 어젠더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만 국제 종교 단체들을 개입시키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⁴⁷

4.2 이른바 ‘종교 친화적 정책’의 출현

북한은 종교 단체들의 활동을 국제 사회와 소통하는 통로로 활용해왔다. 그간 유명무실했던 조선그리스도교연맹과 조선불교도연맹,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의 활동이 재개되었다. 또한 1988년 평양에 장충성당과 봉수교회가 건축되었고, 봉수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 예배가 드려졌다. 또 1989년에는 평양에 칠골교회가 세워졌다. 기독교는 물질적 지원을 받는 데 매우 용이하다

는 점으로 인해 1990년대에 중요한 외교적 통로가 되었다.

북한 종교 단체들의 외부적인 업무 또한 활발히 발전해 왔다. 2003년 조선종교인협의회 회장,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 부위원장, 조선불교도연맹 부위원장은 서울에서 한국의 종교 대표자들과 함께 3.1절을 공동으로 기념했다.⁴⁸ 또한 조선그리스도교연맹 대표단은 2004년 일본 도쿄를 방문하여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기독교국제회의”에 참석하기도 했다.⁴⁹ 이러한 북한의 종교 친화적인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 단체들의 활동은 조선노동당의 정책 노선 안으로 제한되었다.⁵⁰ 2001년 10월 21일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이 종교 억압 국가로 지정되었을 때, 북한의 공식 종교 단체들은 공식 성명서를 통해 미국을 비난했다.

4.3 계속되는 종교 탄압과 박해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이 종교를 정부 부처 삼아 이용하는 동안 평범한 북한 주민들의 실제 종교 생활은 크게 나아진 것이 없었다.⁵¹ 흥미롭게도 증언에서의 대부분의 종교 탄압 사례들은 기독교와 관련이 있었던 것에 반해, 불교와 같은 다른 종교들에 대한 탄압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듯 많은 증거들은 북한 체제가 기독교를 타 종교들과는 다르게 인식했으며, 그에 따라 탄압의 초점을 기독교에 맞추었다는 의견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탈북자들은 그들의 종교 생활이 극히 제한적이었다고 증언했다. 만약 종교 서적이나 모임이 정부에 의해 발각되면, 발각된 이들은 공개적 또는 비밀리에 처형당하거나 교화소와 정치범수용소에 보내졌다. 또한, 탈북자들은 반종교선전 교육이 과거에 비해 별다른 변화가 없었음을 증언했다. 이렇듯 북한 주민의 종교 생활을 포함한 일상적인 삶은 모두 정부의 엄중한 감시 아래 있다.

4.3.1 공개 처형

인터뷰 대상자 D씨 ▶

“군대에서 복무하던 당시 나는 지하교회 교인 명부를 발견했고, 조사 후에 25명의 신자들이 체포되었으며 1996년 12월 20일 남부 남포에서 5명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처형당했다.”

인터뷰 대상자 E씨 ▶

“기독교인들은 이웃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나무 기둥에 묶인 채로 총살되었다. 나는 누군가가 “나는 천국에 간다”고 외치는 것을 들었으며, 어떤 이는 마지막 순간에 미소를 지었다 (1997년쯤에).”

인터뷰 대상자 F씨 ▶

“나는 2006년에 탈북한 탈북자로부터 2000년에 한 나이 많은 여성이 성경을 읽다 발각되었고, 정부는 그녀를 공개 교수형에 처했다는 사실을 들었다.”

4.3.2 교화소와 정치범수용소 수감

인터뷰 대상자 G씨 ▶

“내 남자 형제는 기독교인들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보내져 그곳에서 10년간 수감되었으며 아직도 북한에 있다.”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일했던 남편을 둔 40대 여성 인터뷰 대상자 H씨 ▶

“1997년 남편을 위해 일하던 한 남성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또 중국에 살던 사촌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러 왔다. 나는 남편으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종교 관련 사건으로 인해 22호 관리소로 보내졌다고 들었다. [후에 성경이 발각되었고 남편을 위해 일하던 그 남성은 붙잡혔다.] 이에 대한 결과로..., 내게 인신매매와 불법적인 돈세탁 등 전혀 생각도 해보지 못한 여러 혐의들이 씌워졌고, 나는 첫 재판에서 15년 선고를 받았다.”

4.3.3 반종교적 지시, 강의와 교육

30대 여성 인터뷰 대상자 I씨 ▶

“성경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 성경을 전혀 본 적은 없지만 봉수교회에 각기 진열되어 있다고 들었다. 또한 ‘영화 문학 공부’라고 하는 것이 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진 예배장한 외도의 아이가 공개적이 아닌 비밀리에 전도하는 것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고 [배웠다]. 신앙을 가지는 것은 머리를 혼란스럽게 하며 예민하게 만든다고 들어왔다.”

30대 남성 인터뷰 대상자 J씨 ▶

“2000년인가 2001년에 ‘종교를 믿는 사람은 혹독히 처벌하겠다’는 공개적인 발표가 있었다. 큰 종이에 미신적 행위 등의 이런저런 종교 행위들이 쓰여 있었다.”

이전에 국가안전보위부에서 근무했던 인터뷰 대상자 K씨 ▶

‘만약 신을 믿고 싶다면 외국 신이 아닌 한국 신을 믿어라! 김일성이 신이다.’라는 지시 또한 내려졌다. 또한 평양에서 대규모 체포가 있었다... [체포된 사람들은]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1974년 강제수용소로 보내졌고, 대부분이 처형당했으며 외딴 지역으로 보내졌다.”

4.3.4 종교와 접촉한 탈북자들에 대한 차별

인터뷰 대상자 L씨 ▶

1999년에서 2000년쯤 한 여인이 돈을 벌러 중국에 갔다가 성경책 두 권을 가지고 북한에 들어왔다. 그 여자는 체포되었고 국가안전보위부로 보내졌다. 그 후, 그녀의 모든 가족은 다 사라졌다.”

30대 남성 인터뷰 대상자 M씨 ▶

“불교 문화는 [북한에서]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불교 신자들에게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는다. 그러나 기독교에는 몹시 민감하다. 어떤 사람들이 [기독교인들과] 접촉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 사람들은 차량으로 다른 거주지로 이송된다.”

전 국가안전보위부 요원 인터뷰 대상자 K씨 ▶

“어떤 사람이 북한으로 송환되었을 때 가장 먼저 받는 질문은 그가 중국에 있는 교회에 갔는지에 대한 여부이다. 그가 그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면, 예비 조사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 [북한 당국은] 그를 반혁명분자로 간주하며 특수하게 분류한다.”

4.4 소결

북한은 소통의 통로로 이용하고자 종교 활동이 재개되는 것을 허용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북한 정부는 성당, 교회, 불교 사찰과 같은 예배 장소들을 짓기 시작했다. 또한 북한 정부가 후원하는 종교 단체들은 다양한 국제 회의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2003년 이후에 탈북한 최근의 탈북자들은 이 ‘종교 친화적 정책’과 외부적인 종교 활동들에 반해, 북한에서의 사실상의 종교의 자유는 극히 제한되고 있음을 증언했다. 북한 정권은 광범위한 감시망을 통해 일반 주민들의 종교 생활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만약 어떠한 비밀스런 종교 활동이 발각되면 가혹하게 처벌한다. 또한, 일반 주민들은 평양에 세워진 예배 장소에 들어갈 수 없고, 한 인터뷰 대상자는 봉수교회와 칠골교회에 출석하는 주민들은 모두 조선노동당의 구성원들이라고 증언했다.⁵²

5. 결론

북한이 공산주의화된 후부터, 종교인들과 이들의 가족들은 체계적인 사회적, 정치적 차별의 대상이 되었다. 이들은 사회 하층민으로 분류되었고, 일자리를 거부당했으며, 교육의 기회와 그 외 가장 기본적인 삶의 필수 조건들조차 박탈당했다. 증거들이 보여주듯이 반인륜적인 범죄와 심지어 집단 학살도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 것도 또한 가능하다. 일부에서는 북한의 시민 보호 의무가 지켜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며, 인도적인 개입이 정당함을 주장한다.

2011년 3월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침해 사건들과 또 잔혹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이들을 기록하기 시작했다.⁵³ 이는 르완다, 유고슬라비아, 도교, 캄보디아 및 뉘른베르크 재판에서와 유사한 형사 및 민사 책임을 지우는 데에까지 이어질 수 있다.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없이는 진정한 자유도, 민주주의도 없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자유가 제한된 국가 중 하나다. 그럼에도 머지 않은 미래에 북한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다시금 회복하여 타의 모범이 될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본 논문의 영문 원본은 2011년 '국제종교의자유' 저널 1호에 게재되었고, 저자의 허락 하에 국문으로 번역 및 편집하였습니다.**

(Endnotes)

1 WON, Jae-Chun & Kim Byoung Lo, A prison without bars: Refugee and defector testimonies of severe violations of freedom of religion or belief in North Korea, p. 38, United State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March 2008).

2 종교 집단은 관련기간 내에 북한 사회에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올 잠재적 영향력을 가졌던 개신교계 지도자들과 교회들을 의미한다.

3 천도교는 '인내천(人乃天)' 사상에 기반한 한국 민족종교이다.

4 KANG In-cheol, A new understanding of modern North Korean religion history, North Korean Post Independence, Dasan Publications, 1992, p. 149.

5 1910년 5월에는 북서부 지역에 총 511개의 개신교 미션스쿨이 있었다. 이 숫자는 전체 개신교 사립학교의 78%, 전체 중립학교의 64%, 전체 사립학교의 23%에 달했다.

6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들의 종교 분포:
이승훈을 포함한 개신교 - 16명, 천도교 - 15명, 불교 - 2명, 황성기독교청년회(YMCA) (이승만, 서울 지역)와 신민회 (안창호), 이 두 단체와 두 지도자들이 개신교 민족운동을 이끌었다. 이 둘 모두 기독교 정신에 기반한 자유로운 문명사회를 추구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세 거인인 이승만, 안창호, 이종위는 모두 기독교인이었다.

7 BYEON Jin-heung, The North Korean "silence church" and Communism, North Korean Church History in Post Independence, p. 89.

8 Hwajeonchunso (和田春樹), The Soviet Union's Policy on North Korea 1945-1946 [Korean]: Bruce Cumings, Modern history around the division of Korea, Ilwolsaegak Publications, pp. 268-271; BYEON Jin-heung, op. cit., p. 89.

9 Kim Il Sung, "On establishing the New Korea and the National Unified Front" (13 October 1945), Kim Il Sung, Collected speeches volume 1, 1963, pp. 1-10 (KIM Jun-yeop, KIM Chang-sun's co-editionship, Collection of North Korea study volume 1, Research Institute of Asia Affairs, Korea University, 1969, p. 20), cited in BYEON Jin-heung, op. cit., p. 89.

10 KIM Nam-sik & JO Ae-suk, North Korea's recent policy on religion and tactical use, A Monthly Policy Study, November 1982, Researc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p. 25, cited in BYEON Jin-heung, op. cit., p. 89.

11 Sawa Masahiko, History of South and North Korean Protestants, Japanese Denomination Press, Tokyo, 1982, p. 190, cited in BYEON Jin-heung, op. cit., p. 89.

12 Kim Il Sung, op. cit., pp. 236-237 (KIM Jun-yeop, op. cit., p. 191), cited in BYEON Jin-heung, op. cit., p. 90.

13 GOH Tae-wu, Religious Policy of North Korea, Minjok Munhwa Publications, 1989, pp. 108-109.

14 Korean central yearbook, 1950, p. 198, cited in BYEON Jin-heung, op. cit., p. 89.

15 History of Pyeongyang Catholic parish, Pyeongyang Catholic Parish Press, Bundo Publication, 1981, p. 183, cited in BYEON Jin-heung, op. cit., p. 98.

16 Korean complete history volume 24, 1981, p. 502, cited in BYEON Jin-heung, op. cit., p. 94.

17 History of Korean Advent Church, LEE Yeong-rin, p. 276, cited in North Korean Church History Writing Committee [NK Committee] in the Institute for Korean Church History [History Institute], North Korean Church History, 1996, p. 405.

18 Institute of North Korea Study, History of North Korea's Democratic Unification I, p. 397.

19 GOH Tae-wu, op. cit., p. 185.

20 Ibid., p. 401.

21 BYEON Jin-heung, op. cit., p. 101.

22 KIM Se-kyun, Unification Policy, Introduction to North Korea, 1990, pp. 658-666, cited in KANG Incheol, op. cit., p. 149.

23 JANG Byeong-uk, The Church and the invasion in the Korean War, Korea Education Organization, cited in BYEON Jin-heung, op. cit., p. 101.

24 Pyeongyang parish history, pp. 209-213, cited in BYEON Jin-heung, op. cit., p. 105.

25 BYEON Jin-heung, op. cit., p. 105.

26 GOH Tae-wu, op. cit., p. 57.

27 Ibid., p. 122.

28 Testimony of CHOI Gwang-seok, op. cit., GOH Tae-wu, op. cit., p. 192 [Korean].

29 HONG Sa-seong, Reappraisal of North Korea Buddhism, National Buddhism, 1989, p. 254, cited in KANG In-cheol, op. cit., pp. 163-164.

30 Sawa Masahiko, Christianity post dependence in North Korea, 1996, p. 34, cited in NK Committee in Korea Christianity History Institute [Korea Institute], op. cit., p. 419.

31 LEE Seung-man, "No war has a human face," A Monthly Mail, July 1994, p. 47, cited in NK Committee in Korea Institute, op. cit., p. 419.

32 탈북자들의 신원 보호를 위해 숫자와 문자가 부여되었다.

33 LEE Yeong-bin & KIM Sun-hwan, Unification and Christianity, Gonanhamkke Publications, p. 107, cited in NK Committee in Korea Institute, op. cit., p. 419.

34 KANG In-cheol, The root of Protestantism and Catholicism that came over to South Korea: Reformation and Protestantism in North Korea after the independence, pp. 134-135, cited in NK Committee in Korea Institute, op. cit., p. 419.

35 Kang In-cheol, op. cit., 169 [Korean].

36 Ibid., p. 179 [Korean].

37 SHIN Pyeong-gil, The process of the Workers' Party's anti-religious policy, Monthly North Korea, July, 1995, p. 57 [Korean].

38 KANG In-cheol, op. cit., p. 179 [Korean].

39 DOH Hong-yeol, Society and culture: Collection of books for comparison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Ministry of Unification, 1999, p. 152, cited in NK Committee in the Institute for Korean Church History [History Institute], op. cit., p. 430 [Korean].

40 JEONG Ha-cheol, Why do we have to oppose the religion?, The Workers' Party's Publication, 1969, cited in NK Committee in the History Institute, 1996, op. cit., p. 429 [Korean].

41 "성분"은 한 사람의 집안 배경과 신분을 뜻하는 단어이다.

42 SHIN Pyeong-gil, op. cit., p. 58 [Korean].

43 www.nkchosun.com, News Encyclopedia, Seoungbun: Seoungbun Survey Project [Korean].

44 www.nkchosun.com, News Encyclopedia, Seoungbun: Classification and treatment [Korean].

45 www.nkchosun.com, News Encyclopedia, Religion: Policy change [Korean].

46 NK Committee in the History Institute, op. cit., p. 467 [Korean].

47 KANG In-cheol, A new understanding of modern North Korean religion history, cited in KIM Heung-su, op. cit., p. 222 [Korean].

48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서"은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지지하고 선언하였다.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들 중, 당시 전체 한국 기독교인의 비율보다 높았던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들이었기에, 독립 운동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감을 받은 것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비교. 브리타니카 백과사전.

49 www.nkchosun.com, News Encyclopedia, Religion: Policy change [Korean].

50 SHIN Pyeong-gil, op. cit., p. 62 [Korean].

51 북한으로부터 신뢰할만한 최신 정보를 받는다는 것은 거의 드문 일이기에 기본적으로 탈북자들의 증언이 가장 중요한 소식통이다. 종종 탈북자들의 보고가 과장되며 단지 전해들은 말밖에 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경험한 목격자들의 이야기에 집중했고 각 탐방에 대한 정보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자료들을 인용하고자 노력했다.

52 Interviewees 41, 54, 56, 64, B.

53 RAMSTAD, Evan, "Hey Kim Jong Il, Seoul is now taking names," The Wall Street Journal (March 16, 2011): <http://tinyurl.com/HRCK> (last checked 2 July 2011).